

Venture in, 벤처스

→ Enjoy Venture

카티 정보 탁구동호회 핑퐁패밀리

탁구의 힘 .. 넘쳐나는 .. 대단한 .. 패밀리 ..

핑~

퐁~ 탁구대 위를 오가는 탁구공의 경쾌한 소리가 커질수록 직원들의 웃음소리도 덩달아 커지는 이곳. 컨택센터 솔루션 전문업체인 카티정보의 탁구동호회 '핑퐁패밀리'가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현장이다. 민첩한 손놀림과 예사롭지 않은 실력을 보아하니 단순히 취미생활로 시작했다는 말을 믿기 힘들 정도인데... 어느새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방울까지 맺힌다.

이들이 핑퐁패밀리를 결성하고 친목을 도모하기 시작한 것은 2003년도부터다. 회사 건물 지하의 빈 공간을 활용하면서, 직원들의 문화생활까지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탁구장을 만들게 된 것. 좁은 공간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운동으로는 탁구만한 게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갈수록 직원들의 참여가 늘고 있어 회사로선 확실히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다.

정해진 모임시간이나 회칙이 따로 없이, 회원들의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핑퐁패밀리는 주로 점심시간과 퇴근 후의 시간을 이용해서 모인다. **10분만 투자해도 큰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고 나면 업무 집중도 더 잘된다고**

"정식 회원은 10명 정도이지만 회사 직원이라면 누구나 저희와 함께 탁구를 즐길 수 있어요.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탁구장도 늘 개방해 놓습니다."

회장을 맡고 있는 김중환 부장은 비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직원들의 수도 상당수라고 귀띔한다. 원석연 대표를 비롯한 임원진들도 가끔 탁구 한 게임에 빠질 정도로 애정을 보이고 있다. 부서별 대항 탁구대회가 열리는 날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가 연출된다. 종종 거래처 직원들과도 친선경기를 가져 훈훈한 기업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일조하기도 한다.

입사 한 달째인 신입사원 김정균 씨는 "동호회 덕분에 직원들과의 서먹함을 빨리 이겨내고 회사에 적응할 수 있었다"며 동호회 자랑에 열심이다. 요수내기 경기 후, 다 같이 휴게실에 모여 마시는 시원한 음료수 한잔과 정겨운 담소는 회원들에게 더없이 좋은 삶의 활력소가 된다.

"조만간 있을 랭킹결정전이 기다려진다"며 필승을 다짐하는 핑퐁패밀리 회원들. 꿈꾸는 직원들과 함께 '즐거운 회사'를 만들어간다는 카티정보의 경영이념은 탁구의 힘 덕분에 실현되고 있는 듯하다.



★ 유익하고, 즐거운 우리 팀과 동호회를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E-mail이나 전화를 통해 신청해 주세요. 통화 후,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 담당자 : 김지원(ozmail@empal.com, 02-515-36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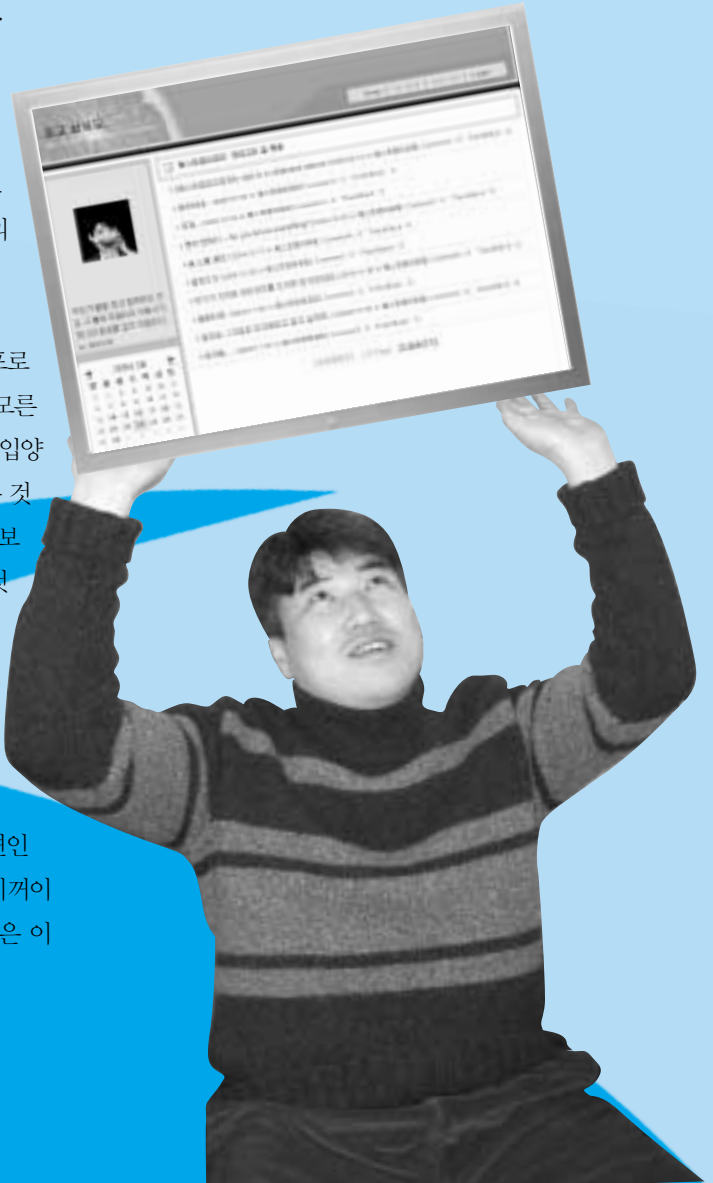
로그 서비스는 대형 포털사이트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사이버 도서관 건설을 꿈꾸는 도서 공유 사이트, '북모임'에도 블로그는 있다. 북모임을 구축한 유무선인터넷 서비스업체 '밸류랩'에서 사이트 개발자로 근무하고 있는 안중희 씨는 북모임 블로그의 열혈 이용자다. 자신이 개발중인 이 블로그에 테스트를 핑계로 하루에도 수도 없이 드나들기 때문이다. '무쇠다리'라는 아이디어에 걸맞게 인터넷을 살살이 뒤져 모은 배꼽 잡는 유머와 개발자 냄새가 폴폴 풍기는 기술자료가 그의 블로그 속에서 꿈틀댄다. 밤을 새며 개발한 북모임 블로그의 '겉모양'과 안중희 씨의 인간 됨(?)을 확인할 수 있는 '속모양'을 구경해보자.

재미, 지식, 정보 여기에 다 모였다

여기는 사랑방, '쇠다리 블루스' 안중희 씨의 블로그(<http://blog.bookmoim.co.kr/steelleg>)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쇠다리 블루스'다. 30대의 기혼 남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소소한 감정의 변화와 일상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솔직 담백하게 실려 있다. 블로거들끼리 이어적기가 가능한 밸류랩 블로그의 트랙백 기능을 통해 낯모르는 블로거들도 위로와 조언을 아끼지 않는 쇠다리 블루스는 베타테스트 중인 이 블로그의 오아시스요, 사랑방 같은 곳이다.

웹개발, Asp.net, DB... 퇴근 후에도 공부는 계속된다 온종일 회사에서 프로그램과 씨름하는 탓에 퇴근 후에는 좀 쉴 만도 한데 그의 씨름은 그칠 줄 모른다. 바로 인터넷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귀중한 옥동자들을 자신의 블로그로 입양하기 위해서이다. 그의 표현 그대로를 빌리자면 '차곡차곡 자료들이 모이는 것을 보면 알콩달콩 기쁨이 샘솟아 난다'고, 부족하지만 인터넷에 산재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개인적으로도 노력해 국내 최고 수준의 웹개발자가 되는 것이 그의 꿈다.

웃기는 자료는 한글, 영어 안 가린다 안중희 씨의 공부는 '베스트 영어 유머'에서도 이어진다. 개발자들은 멋이 없다는 세간의 편견이 있지만 직원들이 평가하는 안중희 씨는 말 그대로 '웃기는 사람'. 이런 주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 중이다. 일종의 팬 관리를 위한 방편인 셈. 개발자를 천직으로 삼고, 조금 덜 가진 이들을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고 싶다는 멋있는 인생관의 소유자 안중희 씨. 그런 그를 고스란히 담은 이 블로그를 강추한다.



Venture in, 벤처인

→ Funny Venture

밸류랩 안중희 씨의 블로그 "웃고 살아요"

내가 개발해서 내가 쓰는, 이 블로그를 '강추' 합니다